

## 전남도 세수 70% 복지예산에 소요 지역개발 잇따라 포기

### 정부, 재정자립도 무시한 채 일률 증액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광주시에 일부 구청의 경우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무려 50%를 넘고 있어 신규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구나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0.4%를 증액해 전체 국가 지출의 4분의 1인 61조 8천억원을 편성하고, 복지 업무에 대폭 이양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 분담 원칙이 적용되는 데다,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무관하게 국비지원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지방비의 차등적용 등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

지 않은 상태다. 참여정부가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복지예산과 사업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배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복지사업도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남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3조9천367억원의 28.3%인 1조1천122억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의 지방세 수입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올해 69.4%에서 내년에는 70%를 넘어섰다. 광주시(구정과는 별도) 역시 복지예산이 22.4%를 차지, 전국 평균 18.0%를 웃돌았다.

광주에서 재정자립도(내년 추정치 17.2%)가 가장 낮은 북구의 경우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총 예산 2천147억원의 57.4%인 1천225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자치구 중 서구도 예산 대비 복지비 부담률이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며, 나머지 3개 구도 4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은 도로나 소화전 보수, 보안등·가로등 정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 민원사업을 축소·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자체 신규사업은 물론, 수해 복구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미뤄지고 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보조사업비를 받아놓고도 신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05년말 기준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 15.6% (전국평균 8.9%), 도내 인구대비 기초수급자비율 6.8%(3.1%)로 사회복지 수요는 전국 최고인 대신 재정능력이 가장 열악한 전남지역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지역개발 사업비가 삭감돼 도 분청은 물론 일선 시·군이 자체사업 추진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복지예산체계를 지자체 재정 형편에 맞춰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뮤지컬 연습장 된 구동체육관

전 세계 16개국에서 공연돼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 오리지널 팀이 26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로미오 앤 줄리엣'은 앞으로 한달동안 광주에서 리허설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아시아와 호주 등 월드 투어에 나선다. 공연장 사정으로 광주에서는 이원게도 이 공연을 볼 수 없게 됐다. > 관련기사 1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앞으론 하나하나 대응”

### 노대통령 “동네북처럼 두드리면 안돼” ...고 전총리에 불쾌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공격을 받았고,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생각”이라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할 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합말 한다고 국정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귀찮고

힘든만큼 저도 국정을 또박또박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특히 고건 전 총리를 겨냥, “지금까지도 그분을 비방하거나 비판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내가 두번 세번 해명을 했는데도 전혀 미안하다는 표정이 없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뒤가 깨끗해야 좋은 술이지만 나는 술뿐만 아니라 사람도 뒷모습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뒤 “오늘 대통령이 동네북이 돼있다. 저는 이것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편으로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안되는 사람(고 전 총리)이 대통령을 동네북처럼 이렇게 두드리면 저도 매우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나는 장관 7개월만에 보도를 통해서 제 해임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비판해서 말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 강연 자료나 연설 자료에 다 남아 있지만 끝까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변호했고 국민의 정부를 변호하는 말만 해왔다”며 “제직 중에는 제가 좀 할 말을 하고 할 말 못 할 말 해서 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지만 그만두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일 행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우리 국민과 국민,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꺾은 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김중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인식·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국사·세계사 합쳐 ‘역사’과목 신설

### 2010년 중1년부터

현재 중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통합돼 별도 과목으로 독립된다. 또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되고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현재 중·고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는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교육과정편제상으로는 사회 과목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험 성적표에 사회 과목으로 성적이 표기되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평가도 사회과목 평가로 이뤄지다보니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역사 과목 독립과 함께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학교 1~3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은 5시간으로 현행과 같다.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2월 고시될 예정이며 중학교 1학년은 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 3학년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 전직 軍수뇌부 “대통령 발언 취소하라”

전 국방장관 등 역대 군 수뇌부들이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에서 긴급 회동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군대발언’과 관련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4면>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우리는 지난 21

일 행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우리 국민과 국민,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꺾은 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김중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인식·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포항공과대학교 50년 역사상 최초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 생일축하금 1000원~4000원 ▶ 11월28일~12월1일  
사제로 봉사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생일축하금 1000원~5000원 ▶ 11월30일~12월1일

순전성기쁨로병원 책임경영 제도 도입

慶祝

제7대 병원장 취임식

일 시 : 2007년 1월 26일(목) 오후 5시  
장 소 : 순전성기쁨로병원 4층 회관

### 노성만 박사 성가쁨로병원 병원장 취임

주요역력

- 1984 연세대학교 세안대학 졸업
- 198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학위
- 1989 성가쁨로 병원장
- 20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0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1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